폐휴대폰

(롬2:17~29)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폐휴대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폐 휴대폰이라고 말하지요.
집에 하나 둘 이상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통이 불가능한 폰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통화가 될 수 없는 폰들입니다.
신품으로 출시될 때는 수십 만 원 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줘도 누가 가져갈 생각 안 합니다.
혹시 폐 휴대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에 보니 무조건 개당 천 원씩 처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주 비싸게 산 것, 쉽게 못 버립니다. 혹시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살아있는 통화가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마는 순금으로 만든 천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통화를 못하는 폐 휴대폰이 된 이상, 기능적으로 보면 단지 폐품입니다. 녹여서 금으로 써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선민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통화연결이 전혀 불가능한 폐 휴대폰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폐 휴대폰을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위한 증표로 삼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오류로부터 유대인들이 빠져나와서 그토록 여망하는 바대로 십자가복음으로 들어올 것을 바라면서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상의 유대인을 향하여 대화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 사도바울이 그 가상의 인물이 대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이상의 다른 조건이나 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미 갖춰진 조건이란 모세의 율법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할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도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조건, 그들의 특권의식의 기반이 되는 율법과 할례로써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발견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이미 폐 휴대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통화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과 할례는 본래 제정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폐 휴대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할례를 아무리 자랑하면서 구원 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해도 그건 단지 주관적인 착각이라는 얘깁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증표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득력 있게 설파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폐 휴대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폐품이 돼버렸을까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원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핸드폰이었어요.
율법은 단순한 기록된 문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관심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그렇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본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내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행동의 지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마음에 들어하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 마음을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을 갖고 계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지금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의견을 갖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마음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버리면서 율법은 선민의 증표로,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받았다, 너희는 이런 율법 없지? 이방인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거고 너희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런 증표로만 활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사할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사실은 십계명 가지고 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내 행동을 위해 삶 속에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갖고 다 됩니까?
십계명도 못 지키지만, 십계명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러이러하게 네가 취해야 될 행동에 의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네가 행동을 취할 때면 살아있는 나에게 마음으로 연결해서 나에게 물으면서 살아가라, 나와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통화를 계속 하자!"고 해서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율법의 원래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선민의식을 유지하고 우월감을 지탱해주는 기반으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긴 해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한 마디로 빼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폐 휴대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라이브로 통화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두신 겁

니다. 즉, 또 두 개의 핸드폰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 언급됩니다.
할례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이전 1절에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라는 얘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다윗이 딱 도착했을 때 다윗은 '할례 받은 선민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가 누구냐'고 할례를 기억합니다.
할례를 떠올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는 사울 왕과 더불어 골리앗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할례를 기억하면서 골리앗보다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선민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이 힘든 상황보다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사업의 어려운 형편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업보다도 더 내 앞에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된다,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하라고 주신 핸드폰이고, 할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의 주인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주신 핸드폰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게 될 때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 하겠고, 네가 좌 하면 나는 우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땅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상황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앞서서 아브라함 앞에 와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느 땅에서 살 것인가에 마음을 조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앞에 와계시므로 내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롯,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할례라고 하는 핸드폰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실현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을 줍니까?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아브라함에 딸린 권속들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 핸드폰을 주시려고 할례의 언약을 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할례가 아니라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하는 핸드폰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폐단이 현실적으로 참 크게 눈에 띄지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폐단은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더워 시원한 것을 먹으려고 집사람과 점심 때 막국수 집에 갔어요.
이제 막국수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새카맣게 얼굴이 그을리신 아저씨 세 분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흘끗 보니까, 세 아저씨 모두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리고 왼쪽 옆으로는 한 가족이 왔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대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왔습니다, 이 남학생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딴 곳에 가있습니다.
이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이 스마트폰의 폐단이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전철에서 한 여중생이 문자를 합니다, 전철의 분위기와는 다른 세계에 살아요.
'뭐라고?' 깜짝 놀랍니다, 킥킥 댑니다, '대박!!' 소리 지릅니다, 전철과는 다른 세계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며 행동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라이브로 앞에 모시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그 본래 할례의 취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로 바꾸어서 받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 대신에 성령을 받자, 그러면 율법의 문자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율법 속에 들어있던 본래의 정신을 우리가 충

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고 어떻게 해야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러한 논증을 펼쳐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십자가복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기억하고 라이브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껍데기가 두껍게 덮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가죽이 됩니다, 그래서 덮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껍데기를 형성하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도를 죽여 버립니다.
핸드폰이 지하실 깊이 들어가면 감도가 떨어져 통화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껍데기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도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좋아서 살이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할례를 받을 때처럼 내 마음에서 그 껍데기들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제거되어야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복음의 능력이에요.

줄곧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달아 중단 없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아버지를 향해서 라이브 통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ㅇㅇ해야 된다, ㅇㅇ해야 된다는 바깥에서 제시되는 수없이 많은 율법들, 자기계발서의 율법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취해야 마땅할 행동의 지침을 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직 내 일은 땅을 골라야 될 형편에서도 자기의 일이 하나님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시고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취해야 될 상황들에서 죽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견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 휴대폰인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된 뒤틀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있을 것

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할례와 율법의 본래 기능인 핸드폰적 기능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새 핸드폰, 신형 스마트폰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죽으므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죽으므로, 정말 감도가 탁월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해주는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를 갈 때라도 그 스마트폰인 십자가를 꼭 마음에 지니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